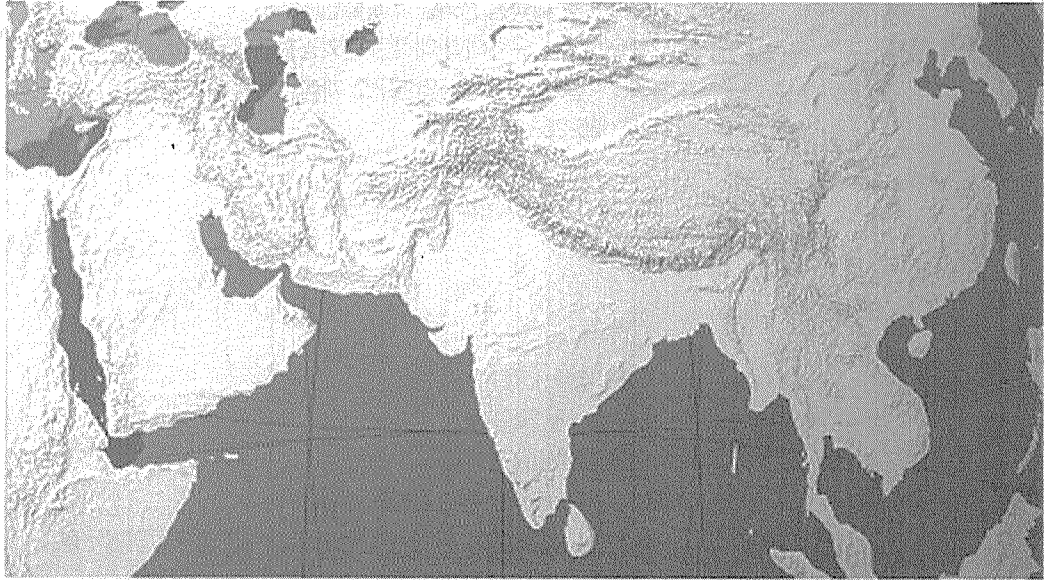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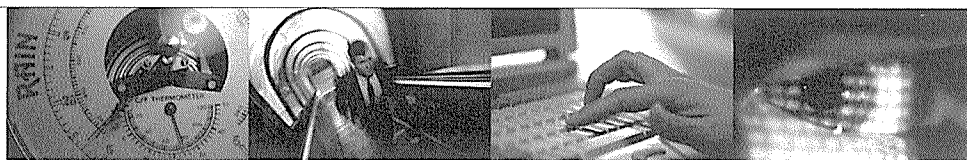


→→→ 중국의 급성장, 우리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II)



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박성순 실장

제조업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경쟁력있는 자기만의 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생산 유통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만 기업의 존재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물은 상대보다 먼저 경쟁력있는 생산기지를 찾아 계속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냉혹한 경쟁체제하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존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경제에 관련된 소식이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금년 열린 제34차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도 참가국들의 주된 관심은 중국에게 모아 졌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2002년도에 무역규모가 6,450억\$(수출 : 3,714억\$, 수입 : 2,743억\$)을 돌파하였고 (2003년에는 8,400억\$ 돌파 전망), 외화보유금액도 2,800억불을 넘어 서는 등 경제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의 많은 경제 전문기관의 전망을 보면 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10년안에 최소한 세계 3위의 경제 및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중국제품의 범람으로 경쟁력을 잃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과 더불어 지난 연말 란싱(藍星)그룹이라는 중국기업체가 6,500억원(약 5.5억불)이라는 호조건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쌍용자동차의 인수대상업체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와 노동계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업체의 쌍용자동차의 피인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3년 초에 하이닉스의 TFT-LCD사업부문을 관장하던 하이디스라는 회사도 하이닉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국 동방전자(BOE)사가 3억8천만\$에 매각되었고, 이외에도 법정관리 중인 오리온전기도 최근 회사의 회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인 오리온PDP의 지분을 매각키로 하고 중국 전자업체 3~4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기업 인수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은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첨단기술집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중 모기업의 자금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많은 경제학자 및 경영자들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5년내에 중국에게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대중국 위기감 팽배가 시사하는 점은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으로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로 발전시키면서 기업들의 할 수 있다는 의욕이 확산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인건비 상승, 노사문제 악화, 기업부담 가중 등 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데

중국의 급성장, 우리에게는 기회인가? 위기인가?(II)

따른 기업인들의 투자욕이 더욱 더 저하되어 산업공동화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늦기 전에 정부의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4. 한·중 상호 투자관계

그동안의 상호 투자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점증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는 중국기업들의 대한국 진출사태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산업자원부의 통계 자료로 보면 2003년 6월말 누계상으로는 우리의 대중국 투자가 120.8억불(전체 해외투자의 18.3%)이고, 중국의 대한투자는 5억불(전체 대한투자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5%수준이던 대중국 투자 비중은 2002년에 35.8%, 2003년 6월에는 46.3%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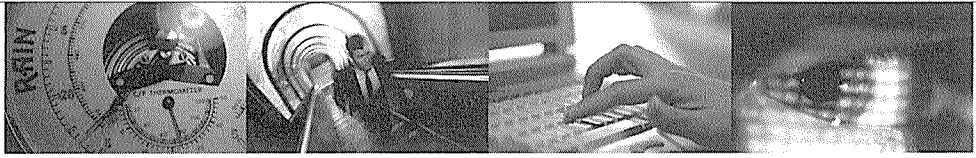
이는 1998년말 누계에 비해 대중국 투자는 1.73배(전체 해외투자는 1.58배)로 증가하였고,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10.2배(전체 대한투자는 2.67배)로 증가한 점을 보더라도 중국의 대한투자가 최근 몇 년간에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중간 상호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해외 투자					대한 투자				
	전체		대중국		금액 비중	전체		대중국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누계	11,986	41,745	5,075	6,982	16.7	12,206	33,498	361	50	0.2
1999	1,266	5,001	552	481	9.6	2,173	15,542	323	27	0.2
2000	2,258	5,907	898	921	15.6	4,271	15,217	1,165	76	0.5
2001	2,285	6,236	1,116	960	15.4	3,418	11,292	812	70	0.6
2002	2,587	5,317	1,446	1,902	35.8	2,435	9,101	441	249	2.7
2003.6	1,142	1,789	646	829	46.3	1,880	4,629	375	36	0.8
총계	21,524	65,995	9,733	12,075	18.3	26,383	89,279	3,477	508	0.6

※ 산업자원부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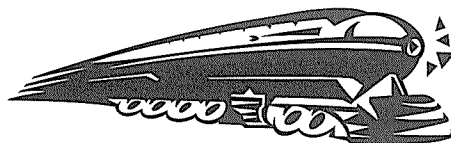


과거 90년대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WTO 가입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중국, 동남아 등 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범람에 따른 경쟁격화로 시장은 축소되는데 반해, 노동계의 발언권 강화로 인한 국내 인건비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등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가들의 투자억욕 부진으로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중국정부의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생산기지 확보차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거대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당시 중국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중국 수요자들의 반응은 좋는데 반해 중국 경쟁제품에 비해 비싸고, 중국 경쟁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모방 생산함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거대한 중국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의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규모의 생산을 하기 위한 현지생산은 필연적이지 않았나 싶다.

초기의 대중국 투자는 80년대 후반부부터 섬유가공품(텐트, 의류), 잡화품 등의 경공업제품에 대한 임가공의 소규모 투자(보통 5백만불 이하)가 주종을 이뤘으나, 90년대 초반부터는 소형 전자제품 등의 전자·전기제품의 조립까지 다양화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자동차, 범용 가전제품 등을 비롯하여 IT제품, 반도체 등 첨단 핵심제품까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대중국 용도별 수출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중국 투자 초기인 1992년에는 대중수출의 81.5%가 원자재이고, 자본재는 12.6%에 불과했었으나, 2002에는 원자재는 51.5%로 줄고, 자본재는 34.4%로 증가하였다. 또한, 대중국 수입도 1992년에는 원자재가 76.4%이고, 소비재는 19.8%이었으나, 2002년에는 원자재는 39.1%로 줄어 들고, 소비재가 31.5%로 늘어났다.



한국의 對중국 용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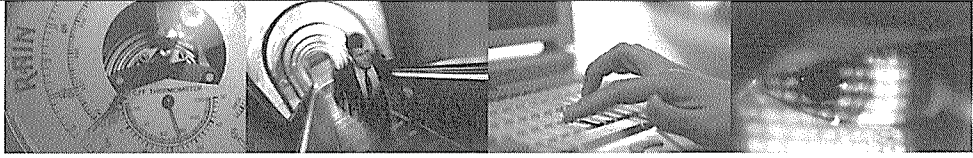
구 분	1992		1995		1998		2001		2002.1-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원자재	2,164 (81.5)	2,847 (76.4)	6,339 (69.7)	5,012 (67.7)	8,508 (71.2)	3,541 (54.6)	11,135 (61.2)	5,354 (40.2)	9,696 (51.5)	5,477 (39.1)
○자본재	335 (12.6)	140 (3.8)	1,737 (19.0)	593 (8.0)	2,311 (19.3)	1,556 (24.0)	5,085 (28.0)	3,873 (29.1)	6,489 (34.4)	4,104 (29.3)
(원+자)	(94.2)	(80.2)	(83.8)	(75.7)	(90.6)	(78.6)	(89.2)	(69.3)	(85.9)	(68.4)
○소비재	155 (5.8)	738 (19.8)	1,001 (10.9)	1,796 (24.3)	1,123 (9.4)	1,387 (21.4)	1,968 (10.8)	4,076 (30.6)	2,651 (14.1)	4,413 (31.5)
(총계)	2,654	3,725	9,144	7,401	11,944	6,484	18,190	13,303	18,840	13,995

* 자료 : KOTIS

이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대중국 수출과 수입 동시에 원자재는 줄고 자본재나 소비재가 늘어난 것 같으나, 내용면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1992년에는 대중국투자 초기 단계라 투자부문도 생활용품 등 경공업부문 및 저가 가전제품에 국한되어 중국에서의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출과 임가공된 반제품의 수입이 주종을 이루어 원자재의 비중이 높았던데 반하여 10년만에 중국에서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생산비중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비중이 높아 지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초기에 중국에 진출했던 신발 등 경공업제품은 이미 중국에서도 경쟁력을 잃어 대부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거나 업종이 바뀐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의 주요 해외투자선이었던 대미, 대EU에 대한 투자는 기술습득 및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대중국투자는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대처하고 후발국들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경쟁력이 약화된 신발류, 섬유 제품 등 경공업 제품부터 저가형 가전제품 등으로 그 대상품목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는 첨단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어 이제는 곧 가장 큰 우리의 해외투자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해외투자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전체		미국		EU		일본		중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누계	11,986	41,745	1,690	8,350	394	3,981	295	524	5,075	6,982
1999	1,266	5,001	349	1,809	32	322	37	99	552	481
2000	2,258	5,907	704	1,300	49	173	136	139	898	921
2001	2,285	6,236	513	1,822	52	2,190	117	101	1,116	960
2002	2,587	5,317	461	1,375	52	767	83	75	1,446	1,902
2003.6	1,142	1,789	235	359	21	128	36	26	646	829
총계	21,524	65,995	3,952	15,015	600	7,561	704	964	9,733	12,075

※ 산자부 자료

일부 노동계 인사 및 국민들은 미래의 경쟁국인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우매한 짓이라는 등, 국부 유출 또는 제조기술 유출이라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현재의 환경(국내 정치적 관행, 경제 제도의 경직성, 일방적 노사관행, 일부 기업인의 윤리의식 등)하에서는 국내에서 기업을 영위해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지 못해 기업이 보다 나은 경제환경을 찾아 해외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보여 진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자료를 보면 지난 1979년 외국인투자를 개방한 이후 2003년까지의 누적투자액이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중국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기업들이 대신 투자하여 우리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데 만약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일 수 밖에 없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경쟁력있는 자기만의 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생산 유통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만 기업의 존재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물은 상대보다 먼저 경쟁력있는 생산기지를 찾아 계속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냉혹한 경쟁체제하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존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유치하여야만 고용 창출을 계속할 수 있고, 국가도 힘을 갖게 되어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국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우리 기업들끼리 과당경쟁을 함으로써 실익보다는 자본과 기술을 잃고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넓고, 지역마다 제도, 관행이 틀려 우리식의 적당주의로는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셋째, 중국 위엔화가 현재는 미국 달러화에 연계되어 경쟁력이 높으나, 머지 않은 장래에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될 경우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5. 중국의 대한 진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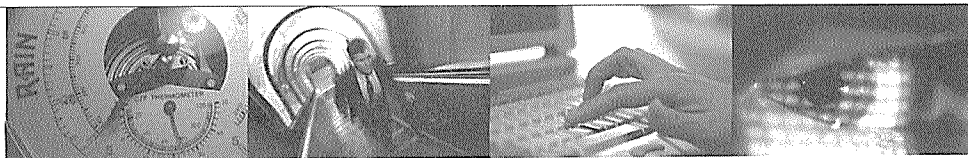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투자가 1998년까지 누계가 335억\$이었던데 반해, 1999년 155억\$, 2000년 152억\$, 2001년 113억\$, 2002년 91억\$, 2003년(9월말) 46억\$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상 급증(평균 40 ~ 50억\$ 수준)했던 것은 IMF를 거치면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외국의 자본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통상적인 외국의 대한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최근의 대한민국 투자 주요국이었던 미국, 일본, EU의 대한 투자액 비중은 1998년 80%에서 2003년에는 75.5%로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액 비중은 1998년 0.15%에서 2003년에는 0.57%로 증가하는데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의 대한투자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전체		미국		EU		일본		중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누계	12,206	33,498	3,032	11,248	1,881	9,212	5,153	6,342	361	50
1999	2,173	15,542	554	3,739	312	6,251	392	1,750	323	27
2000	4,271	15,217	803	2,922	375	4,391	614	2,448	1,165	76
2001	3,418	11,292	658	3,889	306	3,062	591	772	812	70
2002	2,435	9,101	488	4,500	264	1,663	474	1,403	441	249
2003.9	1,880	4,629	327	982	211	2,365	372	449	375	36
총계	26,383	89,279	5,862	27,280	3,349	26,944	7,596	13,164	3,477	508

※ 산자부 자료 참조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WTO가입후 선진국과의 경쟁이 필연이란 점을 인식 “중국 10차 5개년 계획(2000년~2005년)”이라는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산업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강력한 전략적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므로써 상당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중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실행액 기준)는 2003년에만 전년대비 65% 증가한 45억\$(누계액 196억\$)이었으며, 중국에 대한 2003년의 외국인투자 총액은 535억\$(누계액 5,042억\$)로 전년대비 20.22%가 증가하는 등 선진국들의 대중투자가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 참고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통계차이는 개인투자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한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외환매매 허용,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등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각종 법제도의 정비 및 관련조치를 계속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을 볼 때 중국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을 흡수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번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중국 경제 정책 등 경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중국의 변화하는 경제 관련 정책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